

## <선교 매트릭스>

## 경기서부 양혜림

저자는 GMP에서 파송 받아 워낙 오랫동안 에콰도르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기에 선교에 관해서는 전문가라 신뢰가 있어 책을 읽을 때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역시나 책은 저자의 선교 사역의 철학과 경험이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책을 읽으며 많은 부분을 알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첫 장부터 막히는 부분은 있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저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라고 처음 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나는 그동안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책을 읽다 보니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종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와 과정을 강의해 주신 영상을 보고 나서 무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목숨을 바쳐 선교를 했다고 생각하니 우리 또한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저자는 선교현장에서의 잘못된 모습에서 오는 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양적 중심의 선교에서 질적 중심의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 파송한 교회와 선교단체, 후원자들에게 선교의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들을 보이기 위해 힘쓰기 보다 현지인 중심의 선교(현지인이 주인이 되는 선교), 수평적인 선교, 섬기는 선교, 강요하지 않는 선교로의 바른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 우월주의, 물질주의, 식민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선교방식은 당장은 열매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선교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책에 선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들, 생활과 삶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고 공감이 되었다. 사역의 결실보다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선교지에서 사랑과 착함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성육신적 선교),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현지인들의 친구가 되어 자신을 오픈하는 것 등등.

삶이 곧 선교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과 삶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는 자정능력을 잃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인구 대비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한 우리나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만큼이나 많은 위기와 문제점들이 있기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선교의 바른 동기를 회복하고 복음 자체의 능력을, 바른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이다. 한국은 이미 척박한 선교지가 되었고 우리가 속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사회 모든 분야는 선교지이다. 다음세대는 복음화율이 3퍼센트 이하인 미전도종족이 되어가는지 오래이고 크리스찬들조차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를 꺼린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덕이 되어 버린 요즈음, 어느덧 우리는 선교를 너무 열성적인 혹은 의례적인 행사들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 파송되어 교사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 곳에 있으면서 나는 선교의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맺었는지 돌아본다. 마 28:18-20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날마다 달려간다. 너무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무너진 교육 영역에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무너진 교육 영역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꿈꾼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꾼다. 피부색, 언어, 사상과 상관없이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 날이 오리라 믿는다.